

2023년 자치행정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



남 양 주 시 의 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목 차

I. 연수 개요

- ① 배경 및 목적 3
- ② 연수 개요 및 세부일정 4
- ③ 연수국 일반현황 6
- ④ 기대효과 9

II. 연수 내용 및 성과

- ① 주요기관 공식방문을 통한 역량 강화 10
 - [시드니] 라이드시의회
 - [멜버른] 멜버른시의회
- ②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해외기관 벤치마킹 17
 - [시드니] 달링스퀘어 도서관
 - [멜버른] 빅토리아 주립 도서관
- ③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성공사례 분석 21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 [멜버른] 로얄 보타닉 가든
- ④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료 수집 25
 - [시드니] 더블베이 마켓
 - [멜버른] 퀸 빅토리아 마켓

III. 연수후기(소감 및 정책반영 아이디어) 29

IV. 시사점 및 총평 33

2023년 자치행정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

I 연수개요

1 연수배경 및 과제

- (연수배경)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강력한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호주와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비교하여 의원의 본래 역할을 되새기고, 도심 중앙의 랜드마크로 활용하는 호주의 도서관을 벤치마킹 하는 한편,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을 바탕으로 호주만의 특색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사례를 우리 시에 비교 접목하고자 함.
- (연수과제) 호주의 선진화된 행정, 산업경제, 교육 등의 의정 및 시정과 관련 있는 각종 정책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서관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공공건축물 디자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하고자 함.
- 지역특화거리 및 전통시장 견학을 통해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계 최고의 공연시설을 갖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견학을 통해 북부 공연장 조성 및 관람객 유치에 참고하고자 함.

2 연수개요 및 세부일정

1) 연수개요

○ 기 간 : 2023. 2. 21.(화) ~ 2. 28.(화) <6박 8일>

○ 방문국가 : 호주(시드니, 멜버른)

○ 방문기관 : 라이드시의회, 멜버른시의회

○ 연수인원 : 14명 (시의원 8 의회직원 5 집행부직원 1)

- 시의원

연 번	소 속	분 야	성 명	업 무 내 용
1	자치행정 위원회	단장	김지훈(국)	위원회 국외연수 추진 총괄
2		의회제도 분석	이수련	지방의회 제도 및 의회 청사 벤치마킹
3			박은경	지방의회 제도 및 의회 청사 벤치마킹
4		도서관 벤치마킹	한근수	도서관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비교
5			정현미	도서관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비교
6		지역경제 활성화	김지훈(민)	자연환경의 관광 자원화 사례 확인
7			원주영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벤치마킹
8			전혜연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벤치마킹

- 공무원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1	의회사무국	행정5급 (전문위원)	서용관	위원회 국외연수 기획
2		행정6급	도수현	연수과제 행정지원
3		행정7급	신상민	국외연수 사전 준비
4		행정7급	권 혁	국외연수 사후 정리
5		임기제8급	김정환	사진 촬영 및 의회 홍보·기념품 준비
6	자치행정과	행정7급	최예선	연수과제 행정지원

2) 연수세부일정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주요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비고 (관련부서)
출발일 ~ 2일차	인천	시드니	출발 20:00 도착 0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드니 도착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등 탐방 • 숙소 이동 	
3일차	시드니		[공식기관방문] 라이드시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드시 의회 방문 • 더블베이 마켓, 시드니 수산시장 방문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시찰 	의회사무국 산업경제국 문화교육국
4일차	시드니	멜버른	출발 16:50 도착 1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드니 달링스퀘어 도서관 시찰 • 시드니 → 멜버른(국내선) • 숙소 이동 	평생학습원
5일차	멜버른		[현장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멜버른 보타닉 가든 탐방 • 퀸 빅토리아 마켓(전통시장) • 빅토리아 도서관 방문 	평생학습원 산업경제국
6일차	멜버른		[현장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레이트 오션로드 	문화교육국
7일차	멜버른	시드니	[공식기관방문] 출발 16:30 도착 17: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멜버른 시의회 방문 • 멜버른 → 시드니(국내선) • 숙소 이동 	의회사무국
8일차	시드니	인천	출발 10:20 도착 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드니 → 인천 	

3 연수국 일반현황

1) 연수국가 : 호주

 	
국 명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
위 치	오세아니아(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
면 적	769만km ² (한반도의 약 35배 / 남한의 약 80배)
수 도	캔버라(Canberra)
인 구	2,575만명(호주 통계청, 2021년)
정부형태	영연방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양원제)
행정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주(St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 시드니, 뉴캐슬, 울릉공 - 빅토리아(Victoria) : 멜버른, 질롱 - 퀸즐랜드(Queensland) :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 서호주(Western Australia) : 퍼스 - 남호주(South Australia) : 아들레이드 - 타즈매니아(Tasmania) : 호바트 ○ 2개 준주(Terri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 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 캔버라 - 북부 준주(Northern Territory) : 다윈
1인당 GDP	\$60,057.6 (2021 IMF 기준) ※ 경제성장률 4.7%
경 제	수출규모 : 3,447억 달러 / 수입규모 : 2,477억 달러 (2021년 기준)
산 업	.주요 수출품 : 광물, 광물성 연료, 귀금속류, 육류, 곡류 등 .주요 수입품 : 기계·원자로부터품, 차량, 전자기기, 광물성 연료, 의료용품 등
인 종	영국계(36.1%), 호주계(33.5%), 중국계(5.6%), 인도계(4.6%) 등
종 교	천주교(22.6%), 영국성공회(13.1%), 이슬람교(2.6%), 불교(2.4%) 등
언 어	영어(공용어), 원주민어(수백의 방언)
환 율	AU\$ 1 = 867.38원 (2023년 1월 7일 기준)
시 차	호주에는 3개의 시간대가 있음. (동부:한국시간 +1, 중앙부:한국시간 +30분, 서부:한국시간 -1)
기 후	남부(온대), 북부 및 서부(열대), 내륙(대륙성)
대한민국관계	1961년 수교
한 인 수	12만여 명(시민권자 제외 / 2019년 말 기준)

2) 연수도시 : 시드니



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New South Wales)
행정구역	컴버랜드 카운티(Cumberland)
면적	12,367km ²
인구	536 만명 (2020년 기준)
시장	클로버 무어 (Clover Moore, 2004~)
의회구성	10명 (시장, 부시장, 8명의 시의원으로 구성)
시간대	UTC+10:00 (서머타임 UTC+11:00), 우리나라와 +2시간
주요산업	금융업, 제조업, 관광업
주요관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페라하우스 (Opera House) • 시드니항(Sydney Harbour) • 하버브리지 (Harbour Bridge) • 블루마운틴(Blue Mountain)
시드니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 호주의 역사가 시작된 금융, 상업, 문화, 관광, 교육의 중심지 •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호주 GDP의 30% 이상을 차지 • 호주의 금융, 보험 산업의 45%, 문화 산업의 50%, 제조업의 33% 가량 분포

3) 연수도시 : 멜버른



주	빅토리아 주 (Victory State)
행정구역	그랜트(Grant),버크(Bourke), 모닝턴(Mornington)
면 적	9,993 km ²
인 구	약 515 만명 (2020년 기준)
시 장	샬리 캡 (Sally Capp, 2018~)
의회구성	11명 (시장, 부시장, 9명의 시의원으로 구성)
시 간 대	UTC+10:00 (서머타임 UTC+11:00), 우리나라와 +2시간
주요산업	금융업, 자동차 산업, 기계 공업
주요관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레이트 오션로드 · 필립 아일랜드 · 단데농 · 퀸 빅토리아 마켓
멜버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제2의 금융 중심지 · 빅토리아주의 상업, 각종 산업 및 문화의 중심지

4 기대효과

- 라이드 및 멜버른 시의회를 방문하여 기관의 운영현황 및 그 밖의 행정, 지역경제, 교육 등의 현안 과제 논의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정책 방향과 집행상황을 비교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우리 시정에 연계 방안을 강구하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 제로 에너지빌딩을 대표하는 멜버른 시의회를 방문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 사례를 확인하고, 우리 시의 에너지 절약형 공공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 방안을 벤치마킹 하고자 함.
- 해외도서관 탐방을 통해 선진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시스템에 관한 현장 사례를 경험하고,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공공 건축물 디자인 우수 사례를 견학하여 우리 시의 노후화된 도서관 리모델링 및 신축 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시드니와 멜버른의 관광·상업 특화 거리와 지역 전통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우리 시의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육성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그 밖에 호주의 역사·문화 관광지를 방문하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왕숙천, 한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친환경 문화관광자원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시드니의 도시관광 명소인 오페라 하우스 견학을 통해 우리 시 복합 공연장 건립 등을 위한 시설과 운영프로그램 자료를 수집하여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Ⅱ 연수내용 및 성과

1 주요기관 공식방문을 통한 역량강화

1) 시드니 라이드시의회 방문

■ 방문개요

- 일자 및 장소 : 2023. 2. 23.(목) 라이드시의회
- 참석자 : 김지훈(국) 위원장 외 13명, 샤키스 예드리안(시장), 버나드 퍼셀(의원), 다니엘 한(의원), 웨인 라일레즈(시 최고경영자), 마크미더 실랑(집행부 직원), 댄 휴즈(집행부 직원)

■ 라이드시 현황

● 일반현황

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New South Wales)	
면적	40,651km ²	
인구	129,773 만명 (2021년 기준)	
시장	샤키스 예드리안 (Sarkis Yedelian OAM)	
의회구성	12명 (시장, 부시장, 10명의 시의원으로 구성 참고: 2021년 2명의 한국계 시의원 선출(한정태, 송강호 의원)	
시간대	UTC+10:00 (서머타임 UTC+11:00), 우리나라와 +2시간	
직책	시장 (Lord Mayor)	부시장 (Deputy Lord Mayor)
성명	샤키스 예드리안 (Sarkis Yedelian OAM)	로이 마지오(Roy Maggio)
사진	 	
취임일	2022년 12월 13일	2022년 12월 13일
특징	Ryde시의 최장수 시의원 (2004년~현재)	

■ 주요특징

- 라이드 시는 2021년 있었던 호주 지방 선거에서 최초로 한국계 시의원 2명이 선출된 곳으로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결합된 시드니 북부지역의 도시 발전과 환경 등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업 도시임.
- 또한 다양한 국가의 이민족들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시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인종 분포 역시 다양한데 이러한 호주 지방 도시의 특성상 이민자의 출신 국가 및 구성원 결집도에 따라 시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음.
- 특히 라이드시는 전체 인구의 10%가 한국인이며 이중 이스트우드 지역은 한인 상가가 밀집 되어있는 지역으로 최근에 정식으로 코리아타운으로 지정되었음.
- 코리아타운이 지정되었다는 점은 도시 내 한국계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문화의 호주 진출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할 여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국내기업의 호주 진출 타진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아울러, 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업무는 도시계획, 공원관리 및 도서관 등 생활 편의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지속가능한 장기적 목표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신공항 개설과 그에 따른 자율주행 대중교통수단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
- 한편, 호주의 지방정부는 청사의 1층과 2층을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도서관 등으로 조성하고 집행기관의 사무실은 지하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계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시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높이고 의원과 직원이 그 하부 시설에서 그들을 항상 지원하는 마음을 담은 공간배치라 함.

■ 시사점

- 라이드시는 이민족의 국가인 호주 내에서도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 중 하나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협치와 소통으로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음.
-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존중하는 뜻에서 각종 문화행사 시 사용할 수 있게 시에서 그랜트 프로그램이라는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다문화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 상호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룹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함.
- 라이드시의회의 경우 청사 내 작은 도서관을 비롯, 지역 사회단체나 기업 또는 개인 등의 크고 작은 모임을 위한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공연 전시회나 박람회 등의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제공하여 청사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활용률이 매우 높았던 점이 인상 깊었음.
-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다민족 국가의 특성상 인종 간의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호주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라이드 시의원들도 사회 구성원 중 특정 집단이 소외받거나 주요 정책에 무관심해지지 않도록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시의 발전을 위하여 소수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경청하고 반영하려는 의사소통의 창구 및 대변자 역할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본받을만한 점이었음.
-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회에도 다양한 이해관계 및 집단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나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다양한 시민 간 충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면서도 다각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봄.

참 고 사 진



지역언론 참고 자료



호주요식업중앙회는 시드니 각 요식업계 경영자와 셰프들로 구성된 단체로 2022년 11월, 한국농림축산식품부와 KBS가 공동 주최한 "2020 코리아김치페스티벌"의 첫 호주 개최를 성공적으로 치뤘던 바 있으며 영국, 미국, 프랑스, 베트남, 러시아, 호주 6개국이 동시에 생방송으로 참여했다.

(회원가입문의 0403-433-070)

▲ 모금 기간: 2월 14일부터 3월 31일(금)까지

* 한인회 접수: 직접 기금 전달한 후 영수증 수령

* 인터넷 뱅킹: 벤디고은행 한인회 계좌 이용

은행: Bendigo Bank

예금주: Korean Society of Sydney Australia

BSB No: 633 000

Account No: 153288394

[한인동정, 해외방문]

남양주 시의회와 공무원들이 해외 지방정치 및 여러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시스템과 기능을 개발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2023. 2. 23(목) 공무원은 호주시드니 라이드 시의회를 방문하여 라이드 시의원 한정태(한인재외동포) Daniel Han, 시장 사키스 예델리안 (Mayor Sarkis Yedelian), 해외 방문단 담당자 Mr Dan Hughes (덴휴즈), 시청 CEO는 Mr Wayne Rylands (외인 라이란즈) Mr Mark Eady (마크 이디) 접견하였다.

이러한 국제우호교류는 지방정치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 교육, 경제 등에서의 국제우호교류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식을 높이며, 새로운 기회와 발전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양주 시의회와 라이드 시의회의 국제우호교류는 양국의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호주 상공회의소 총영사관 간담회]

[호주한인복지회]

*주소: B1 / 161 Arthur St. Homebush West NSW

2140 전화: 02 8376 1887, 0430 559 589

이메일: koreanwelfare@hotmail.com

웹사이트: www.info@koreanwelfare.org.au

근무시간: 월, 목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화 Closed, 수, 금 오전 9시 30분-낮 12시

*주간 노인복지센터 운영. 교통편, 실내 외 다양한 활동,

정기적 야외나들이 및 정보 제공. Day 1-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장소: High St

Community Centre (64 High St. Strathfield NSW).

전화: 02 8376 1887 / 0449 882 400. Day 2-시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장소: 동일

*문화센터 운영.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4시 리드컴 커뮤니티센터 (3

Bridge St. Lidcombe)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11시 로즈 ACPC (Shop 1,

15-17 Blaxland Rd. Rhodes)

2) 멜버른 시의회 방문



■ 일반현황

명칭	Council House 2 (CH2)
위치	218-240 Little Collins St, Melbourne VIC 3000
일반현황	· 개관 : 2006년 8월
	· 건물층수 : 10층
	· 신청사용도 : 멜버른시 직원 540명근무, 1층은 각종 상점 입주,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활용
	· 수상경력 : 호주녹색건물협회의 6성(SIX STAR)등급획득
	· 바닥총면적 : 12,536 m ²
	- 시청사무공간외 용도
	지하층: 1995m ²
	1층 상점입주면적 : 500m ²
	- 자전거주차대수 : 80대
	-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샤워실 : 9개
	- 주차면적 : 20면, 장애인용 1면

■ 주요특징

- 호주의 멜버른 시의회 신청사 (Council house 2)는 호주 최초로 친환경 건축물 6등급에 등록된 공공청사로서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 기술을 집약하여 조성되었음.

- 건물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30분마다 외부 공기를 순환하여 지속적으로 신선한 내부 공기의 질이 유지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과 더불어 건축물의 소재 또한 재활용 콘크리트, 재활용 목재를 사용한 친환경 건물이라는 점.
-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살펴보면, 건물 외부에는 재생 목재를 이용한 차양을 설치하고 일사량에 따라 자율 운행되어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빛의 조도를 유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건물 옥상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를 통해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자가 보급률을 높여주는데 앞서 말한 건축의 외관과 환기 시스템 뿐만 아니라 작동원리 및 에너지원 모두가 친환경적인 시설임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온도 조절이 가능한 시설로서 에어컨이 없는 건물로 유명한데, 건물 외벽에 설치된 샤워타워는 차가운 공기와 물의 순환을 통해 건물 내부의 온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로 이 시스템은 지상 17미터 높이에서부터 내부 공기를 유입 및 냉각하여 에어컨 없이 실내온도를 항상 24도 내외로 유지시킨다고 함.
- 이러한 친환경적 건축 시공과 내부 운영 시스템으로 뮐러 시의회 신청사는 건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전기소비량 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음.

■ 시사점

-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이 시점에서 호주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발전에 대한 의지를 건축물로서 표현하였다 할 수 있겠으며, 우리시의 각종 공공청사나 시의회 청사 신축 시에 이처럼 친환경 통합설계를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 친화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 물론, 단순한 생각이나 착안 등에 의하여 시의 모든 공공 건축물에 에너지 제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예산 확보나 비용 대비 효과성 등의 문제로 현실적인 난항을 겪을 수 있겠지만, 새로이 조성하는 청사나 주민 커뮤니티 시설부터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설계 참여 등 체계적인 절차로 이러한 친환경 기술을 하나씩 적용해나가 간다면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해법이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임.

참 고 사 진



2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해외기관 벤치마킹

1) 시드니 달링스퀘어 도서관



● 일반현황

명 칭	Darling Square Library
위 치	The Exchange, levels 1 and 2, 1 Little Pier St, Haymarket NSW 2000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 관 : 2019년 11월 9일 ·주요시설 : 약 2,000 ㎡ 2개의 층, 어린이 전용 공간, 라운지, 미팅룸 등으로 구성 ·소장자료 : 약 26,033 권의 도서, 약 17,000건의 간행물, DVD, CD 및 다양한 언어의 세계 컬렉션 보유
특징	·도심 속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참신한 구조의 건축물과 다양한 식당 및 카페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시민 접근성을 크게 높임

- 2019년 11월 달링하버와 차이나 타운 인근에 개관한 달링스퀘어 도서관은 기존의 헤이마켓 도서관이 이전한 것으로, 도서관의 명칭 변경과 함께,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공간을 확장 증축하여 새로이 조성되었음.

- 건축물의 외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건축 회사가 선보인 특이한 나선형 ‘별집’모양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이며, 증축된 공간에 맞추어 세계의 광범위한 아시아 문학 컬렉션과 일간신문 등을 포함하여 3만 개 이상의 물품이 구비되어 있고, 전용 어린이 공간을 비롯하여 무료 와이파이, 공공 컴퓨터, 풍부한 커뮤니티 및 학습 공간과 회의실 등 도서와 관련된 다양한 공간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시사점

- 6층 높이의 건물을 칭칭 둘러싼 총 길이 20km 가량의 아코야 목재 장식은 불규칙적이면서도 신선하여 젊은 사람들을 카페나 다른 오락 거리로부터 잡아끄는 매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오전 시간대부터 개성 짙은 젊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었음.
- 사실, 우리나라의 정서적 요인에 따라 지역 주민편의시설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이 도서관이기에 우리시에도 정약용, 이석영 도서관 등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도서관이 많이 신축되고 있지만, 초고속 정보화 시대에 감소하고 있는 독서율 및 도서관 이용률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도심 한복판에 미래한 건축양식으로 조성한 새 도서관을 탐방하면서, 독서문화를 장려하는 호주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음.

참 고 사 진



2) 멜버른 빅토리아 주립 도서관



● 일반현황

명 칭	State Library Victoria
위 치	28 Swanston Street, Melbourne, VIC 3000
일반 현황	· 개 관 : 1856년 2월 11일
	· 주요시설 : 23개의 건물이 연결되어 하나의 도서관을 구성 (라 트로브 리딩룸, 레드몬드 베리 자료실, 체스룸, 갤러리 등)
	· 소장자료 : 250만권 이상의 도서, 16,000건의 간행물, 사진, 그림, 창작품, 지도, 전자 정보자료 등 빅토리아의 문화적 사회적 유산 소장
특징	·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자 세계 최초의 무료 도서관
	·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1865년 개관되어 23개의 고전적인 건물과 웅장한 열람실을 현재까지 유지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멜버른의 랜드마크

- 1856년 건축가 조셉 리드의 설계로 건립된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 중 하나이자 빅토리아주의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서, 2백만권 이상의 장서와 다수의 간행물, 미술품 등의 창작물 등 빅토리아의 역사·문화적 유산이 소장되어 있음.
- 구형 건물이지만, 지속적인 수선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통행로, 자녀 학습 시 대기하는 부모를 위한 휴게실, 전용 열람실, 개인회원 전용 라운지 등 현대 도서관과 비슷한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음.

■ 시사점

- 장서 규모와 넓은 공간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도서관과 달리 퀸 빅토리아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운영되고 있었으며, 내부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지역 향토자료를 중점 수집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조상 찾기 지원을 위해 족보 자료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 공동체 형성의 공간 그 자체였음.
- 착안사항으로는 납본도서관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함. 우리나라 중앙도서관과 국회 도서관 역시 도서관법 제20조 및 국회도서관법 제7조에 의해 법률로 납본제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자체는 조례 등의 별도 규정은 없는 실정으로, 우리시 대표 도서관중 하나인 정약용도서관과 이석영 도서관 등에서 최소한 우리시 간행물에 대한 것이라도 납본제를 운영하여 각 도서관 내 서가 등에 이를 비치하고 열람하거나 전자화된 파일을 웹사이트 상에서 검색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면 시의 연구자료 확인 등 시민들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같은 맥락에서 정약용 도서관내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직접 저술한 책자를 구비하거나 정약용 선생 학문 관련 서적 논문 학술자료 등을 비치하여 정약용 선생의 학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 및 연구단체나 일반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활용 가치가 좋을 것으로 보임.

참 고 사 진



③ 문화·환경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성공사례 분석

1)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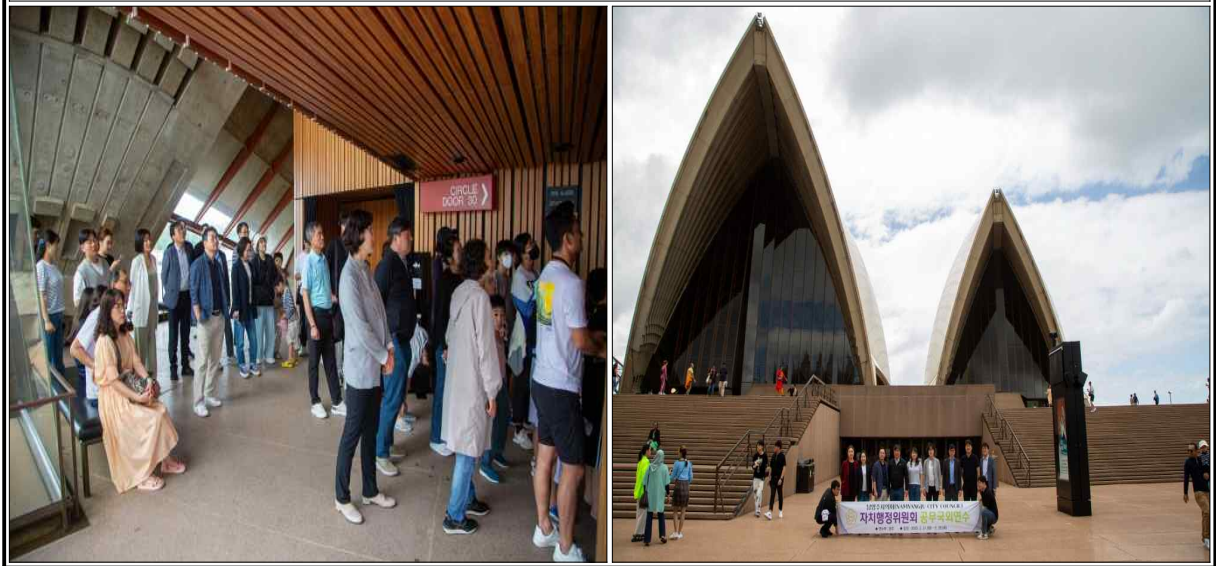
명 칭	Sydney Opera House
위 치	Bennelong Point, Sydney NSW 2000
일반 현황	·개 관 : 1973년 10월 20일 ·주요시설 : 1547석의 오페라 극장, 2679석의 음악당, 극장, 전시관, 도서관 등으로 구성
특징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로, 1973년 완공되었으며 2007년 유네스코세계유산에 선정 ·매년 평균 약 3,000여회의 행사와 200만명의 관광객 유치
착안 사항	·시드니의 도시관광 명소인 오페라하우스 견학을 통해 남양주시 복합공연장 건립 등을 위한 사례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호주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랜드마크로서, 1955년 호주 정부가 개최한 국제 건축 공모전에 선정된 덴마크의 건축가 이외른 우촌의 설계로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시대를 앞서간 디자인과 공사 시 내부 불협화음 등에 의해 실제 착공일인 1959년부터 1973년 준공 되기 까지 14년이상 걸린 건축물이며 200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되었음.
- 공연장으로서의 오페라 하우스는 매년 3,000회 이상의 공연과 200만명 가량의 관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1500석의 오페라 극장과 2700석의 콘서트 홀 및 각종 영화와 드라마 극장을 보유함.

■ 시사점

-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 건축물로서, 건물의 외형적 측면이 주는 아름다움으로 인해 수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지만, 대형 공연장으로서의 본래 기능에도 매우 충실하여 수많은 공연이 실제 펼쳐지고 이를 보러오는 관람객도 많이 있는 복합 문화공간임.
- 우리시는 현재 74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3기 신도시의 조성에 발맞춰 100만명의 인구를 바라보는 만큼, 그에 따르는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대규모의 공연장 조성이 절실함.
- 지난 2014년, 북부권역의 복합커뮤니티 공연장 종합추진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추진되다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적정성이 약화되어 타절된 바가 있는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시찰하면서 재차 진행되고 있는 진접 2지구 등의 북부공연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많은 시민에게 문화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음.

참 고 사 진



2) 멜버른 로얄 보타닉 가든



● 일반현황

명 칭	Royal Botanic Gardens Victoria – Melbourne Gardens
위 치	Birdwood Ave, Melbourne, Victoria 3004 Australia
일반현황	· 개관 : 1846년
	· 면적 : 380,000m ²
	· 12,000종의 식물과 50종의 야생 조류가 살고 있음
특징	·연간 약 200만명의 시민들과 관광객이 방문

- 1846년 조성된 멜버른 왕립식물원은 35ha 대지에 12,000종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으며 50종의 야생 조류가 서식 중인 대규모 식물원으로 매년 16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 보타닉 가든은 영국 빅토리아 왕정시대의 문화유산으로서, 호주 시민들 역시 가든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시민들의 안식처 역할을 하는 곳이라 볼 수 있음.
- 특히 이안포터 재단이 설립한 어린이 정원은 아이들이 자연을 체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넝쿨 동굴을 탐험하고 큰 바위와 대나무 숲 등 숨바꼭질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한 켠의 도시형 어린이 텃밭은 사각형 나무틀로 구획되어 각종 과채와 꽃을 심고 가꿀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음.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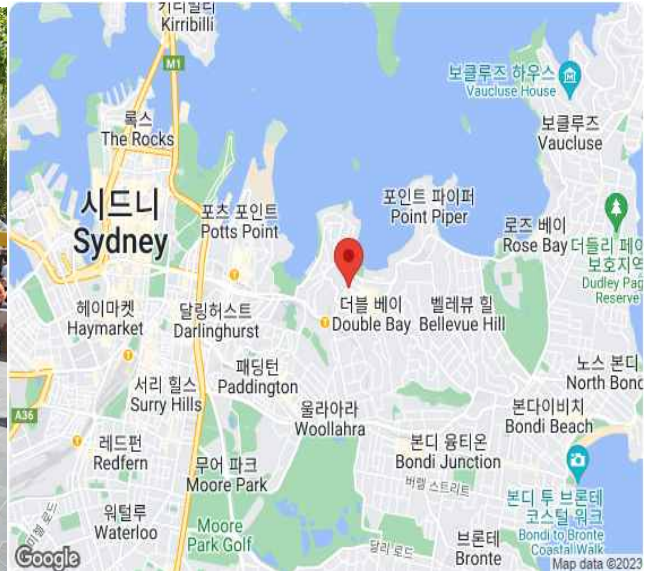
- 천혜의 자연환경과 넓은 토지를 활용한 휴식처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식물원을 조성한 사항으로, 이러한 노력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각박한 도심의 경관 요소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아울러, 도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연 그대로의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있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함.
- 우리시에도 수동면의 물맑음 수목원과 조안면의 물의 정원에 어린이 체험공간 마련을 통해 아이들에게 소중한 자연을 눈과 손으로 직접 체험하게 하고, 시설 내·외부 자투리 공간에 작게나마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텃밭을 조성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분양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참 고 사 진



④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료 수집

1) 시드니 더블베이 마켓



● 일반 현황

더블베이
마켓
(시드니)

- 위치 : Guilfoyle Avenue Double Bay NSW 2028 Australia
- 영업일 : 매주 목요일 (09:00 -14:00)
- 시드니 동부의 고급 항구 지역
- 인증된 유기농 농산물, 수산물 등의 신선제품과 다양한 물품 판매

- 호주의 비버리힐즈로 불리는 대표적인 시드니의 부촌인 더블 베이에서 각종 명품 상점과 고급 식당들이 즐비한 녹스(Knox) 스트리트에 위치함.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더블 베이의 중심부인 녹스스트리트 끝 길드포일 공원에서 열리는데, 부촌의 주민을 상대하는 것인만큼 인증된 유기농 과일 및 채소, 빵, 신선한 육류 및 생선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며, 주민들의 신뢰도로 매우 높아 활발히 운영되는 장터임.

■ 시사점

- 시드니 더블베이는 물품을 구매할 때 다른 곳보다 2배 더 낸다고 하여 더블페이라는 명칭으로 더욱 유명한데, 지역의 거리에서 열리는 정기시장임에도 최상급의 품질을 유지할 만큼 소매 유통업이 발달 되어있으며 판매상품의 신뢰성 또한 높았음.
-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종의 프리마켓 수준으로 작은 소규모 시장이 호주에서는 활성화 되어 있었는데, 중심적인 도심부가 있기보다는 도농, 마석, 장현 등 권역별로 많이 분산되어있는 우리시와 같은 도농 복합도시에 어울리는 시장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음.
- 주민자치회 등 지역 주민 공동체와 관내 농가를 연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도심 속의 소규모 시장을 열어주고, 소비자에게 생산일자와 소비기한 등 상품의 품질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충분히 우리시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시장 모델이라고 판단됨.

참 고 사 진



2) 멜버른 퀸 빅토리아 마켓



● 일반현황

퀸 빅토리아 마켓 (멜버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퀸 빅토리아 마켓 (Queen Victoria Market)· 위치 : Queen St, Melbourne VIC 3000· 1878년 이후, 약 140여년 된 남반구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6만9300㎡의 규모를 자랑하며, 의식주 관련 모든 상품을 판매· 역사와 전통 중심의 브랜딩과 각종 이벤트로 지역시장을 관광 상품화 함
--------------------------	--

- 멜버른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으로, 원래는 1850년대 멜버른 동쪽 지역의 공동묘지 부근 작은 시장이었지만 현재 멜버른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한국의 남대문 시장처럼 호주 서민들의 생활을 쉽게 엿볼 수 있는 곳으로 발돋움했음.
- 2만 1000평에 달하는 방대한 부지에 펼쳐진 시장의 건물은 대다수가 빅토리아 주 정부로부터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관리를 받고 있으며, 판매 품목은 의류, 식품부터 인테리어 용품, 가죽, 골동품, 화훼류는 물론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1970년대 복합비즈니스 센터로 개편한다는 시의 계획을 멜버른 시민들이 항의해 지켜낸 곳으로 개방된 아케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장 내부와 노란색 양철 지붕은 시장의 트레이드 마크임.

■ 시사점



- ‘우리시에도 이런 상설 시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멜버른 퀸빅토리아 마켓은 매우 인상적이었음. 시장은 남대문이나 경동시장을 떠올릴만큼 아주 커서 식품 동만해도 농수산물동, 건어물동, 청과물도매동 등이 각각 있었는데 오랜 역사에 비해 청소는 물론 배수시설도 잘 갖춰줘 특유의 냄새도 없었고 바닥이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였음.
- 새벽부터 많은 시민들이 마켓을 방문하여 식품의 경우 그 자리에서 식음이 가능하도록 편의 휴게시설조차 완벽히 구비되어 있었으며 그곳조차 매우 깔끔하여 도심의 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었음.
- 주 정부에서 시장 보존 관리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각 상점들은 스톨(stall)이라는 재래식 판매대를 140여년간 사용하고 있음에도 높은 청결도와 구매 편의성으로 인해 소비자와 관광객들은 기분 좋게 멜버른의 역사와 전통에 흠뻑 빠져들 수밖에 없었음.
- 시찰하는 내내 세련되게 살아 숨쉬는 전통시장의 정취 속에서 우리시에 있는 장현과 마석의 전통시장을 이렇게 발전시킬 방안이 없는 지 생각해보면서, 역사와 전통을 브랜딩한 지역 상설시장 설립 및 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많은 숙제를 안고 떠나게 된 곳이었음.

참 고 사 진





Ⅲ 연수후기(소감 및 정책반영 아이디어)

1	자율적인 연수 준비로 의원 역량 강화
성 명	<p>김 지 훈(국) 자치행정위원장</p> <p>■ 이번 연수는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호주의 지방의회를 살펴봄으로서, 호주의 선진화된 정치와 행정제도를 벤치마킹하고자 계획된 출장으로,</p> <p>■ 시드니와 멜버른의 시의회 방문 및 우리 위원회 소관의 도서관 및 재래시장 시찰 등을 의원별로 연수 과제화하여 사전 자료 준비부터 현지 기관 섭외와 연구 활동 등을 모두 자체 추진함으로써 연수를 통한 의원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p> <p>■ 연수 단장으로서 철저한 사전 계획에도 현지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돌발 상황 등 아쉬움도 있었지만 일정 차질없이 공식 기관방문 등의 주요 연수 목적을 모두 달성하였던 점에 큰 의의를 두며, 향후를 기약하고자 한다.</p>
감 상 및 작안사항	
2	의무선거제도를 통한 선거 참여율 제고
성 명	<p>이 수 련 부위원장</p> <p>■ 1915년 퀸즐랜드 주를 시작으로 호주는 의무선거제도(compulsory voting)를 도입하여 항상 투표율이 90%를 상회한다.</p> <p>■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은 연방 선거인단 명부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않거나, 투표하지 않는 경우 20호주달러의 벌금이 있다.</p> <p>■ 의원내각제인 호주는 선출된 시의원 중 한 명이 시장으로 선정되는데 이 또한 의원 중 호선하거나 시민 투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방선거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열어놓은 것이 인상적이었다.</p>
감 상 및 작안사항	

3	인도 영업 허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성 명	박 은 경 의원
감 상 및 착안사항	<p>■ 호주는 차도에 인접한 식당 대부분이 인도까지 영업공간을 확장시켜 놓았다. 어떤 식당들은 차도까지 점용허가를 받아 영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p> <p>■ 이러한 공간 활용을 통해 줄을 서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시·공간적 여유로움은 언제나 관광객이나 손님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준비가 되어있다는 느낌을 주었다.</p> <p>■ 상권과 주택가가 같이 묶여있는 우리나라 상황에 이를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소규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도로 공간 활용방안 등 제도적인 규제 완화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p>
	
4	전통과 현재,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호주
성 명	한 근 수 의원
감 상 및 착안사항	<p>■ 이민자의 나라답게 호주는 다양한 인종과 그에 따르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으며, 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예절이 체화되어 있었다.</p> <p>■ 성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도 개방적으로 올해로 45주년이 되는 시드니의 마디그라 축제는 매년 2~3월 경, 성 소수자들이 주인공이되어 그들의 상징인 무지개 휘장과 함께 퍼레이드와 각종 행사를 곳곳에서 이어나가는데, 올해는 세계 각국에서 50만 명이 방문 예정에 있다고 한다.</p> <p>■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가 된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외국인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을 탈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아우르는 호주의 포용력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p>
	

5	어린이 통학 안전에 진심인 호주
성 명	정 현 미 의원
감 상 및 착안사항	<div data-bbox="379 311 997 1070"> <p>■ 호주는 2003년에 국가차원의 안전한 학교 체제를 수립하고 학생의 안전을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였다.</p> <p>■ 호주는 처벌에 있어 단호하고, 벌금이 센 편인데, 40km 이하의 속도의 호주 스쿨존은 위반시 최대 359만원의 벌금과 함께 면허 취소 수준의 벌점이 따른다고 한다. 참고로 호주 운전면허는 120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재취득이 가능하다.</p> <p>■ 2022년도 11월 기사에 따르면, 시드니 등이 포함된 NSW주의 경우 이와 같은 강도 높은 벌금과 벌점제도를 통해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근 5년간 총 3명에 불과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단 한건의 사망사고가 없었던 걸 보면, ‘민식이 법’ 이 발효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p> </div> <div data-bbox="1007 311 1410 1070">  </div>
6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한 시민 이용률 증대방안 마련
성 명	김 지 훈(민) 의원
감 상 및 착안사항	<div data-bbox="379 1225 997 1960"> <p>■ 시드니는 상업 중심지구 중앙에 참신한 건축양식을 활용하여 도서관을 조성하였으며, 멜버른 역시 도심지의 대형 도서관을 도시의 랜드마크로 활용하고 있었다.</p> <p>■ 호주의 이런 공격적인 도서관 공간 배치는 독자와 자칫 멀어질 수 있는 젊은세대에 친독서문화를 함양하고,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p> <p>■ 우리시 역시 정약용 도서관 등 신축 도서관의 경우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다녀 갈만큼 구성이 잘 되어있는 한편, 호평, 와부 등 기존 도서관의 경우 시설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있으므로, 유수의 도서관을 참고하여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시민 편의성과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div> <div data-bbox="1007 1225 1410 1960">  </div>

7	수돗물 음수가 보편화 되어있는 청정국가
성 명	원 주 영 의원
감 상 및 착안사항	<div data-bbox="379 309 997 1048"> <p>■ 연수 기간 호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의 하나는 공공기관이나 호텔에서 정수기나 생수를 구비하지 않는다는 점이였다.</p> <p>■ 호주는 한국 면적의 80배이지만 연평균 강수량이 465mm 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인 물부족 국가이며,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한 사막지대로서, 수자원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정수기나 생수를 이용하는 대신 수돗물 음수를 강조하는 물질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p> <p>■ 우리나라 역시 수돗물 품질이 좋은 국가로 알려져있는데, 요즘은 생수(먹는샘물)나 정수가 보편화 되어있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 우리시는 다산수라는 자체 수돗물 브랜드로 각종 행사나 체육대회에 활용한 적이 있었던만큼, 이를 다시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p> </div> <div data-bbox="1007 309 1409 1048">  </div>
8	전통시장 브랜드화로 활기를 불어넣다.
성 명	전 혜 연 의원
감 상 및 착안사항	<div data-bbox="379 1180 997 1957"> <p>■ 호주는 백화점 및 일반 상점만큼이나 시장도 많이 활성화 되어있다.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지역별로 주말마다 열리는 정기시장인데, 해변 근처의 부촌 지역에서도 활발한 이용도를 보였으며, 판매상들도 유기농 채소 등 제품 신선도와 품질에 확실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p> <p>■ 멜버른에서는 퀸 빅토리아 마켓이라는 상설시장이자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방문하였는데, ‘빅토리아’라는 왕명을 붙여 재래시장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 전통시장의 새로운 활기를 불러 일으킨 점이 참 인상 깊었다.</p> <p>■ 우리시에도 마석과 장현 전통시장이 있는 만큼 새로운 브랜딩과 판매 전략으로 지역 생산품을 효과적으로 유통시킬 방안을 모색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p> </div> <div data-bbox="1007 1180 1409 1957">  </div>

Ⅳ 시사점 및 총평

-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국외출장은 호주의 선진의회제도, 공공청사 및 도서관·공연장 건립, 지역상권 활성화 및 문화관광자원 구축에 대한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의견 제시와 대안 마련을 위해 다녀오게 되었으며 국외 성공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음.
- 우선 호주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 처럼 2차 산업으로 발전을 이루기 보다는 1차 산업인 농업 그리고 3차 산업인 관광·서비스업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자연보존 및 환경보호에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왔음.
- 호주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는데 시드니가 속해있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경제상업지구인 아시아권 이민자 수가 많은 지역으로서, 특히나 우리 위원회가 방문한 라이드시 의회에는 한국계 시의원이 호주 최초로 2명이나 동시에 선출된 바, 한국어로 인사와 소개말을 건네는 호주 시의원의 모습에 감회가 남달랐음.
- 멜버른 시의회 신청사는 호주 최초의 친환경 공공청사로서 일명 에어컨이 없는 건물로 알려져 있음. 우리시에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성장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제로 기술을 적용하여 만든 청사 건립 및 관리 기술에 대한 경험은 앞으로 우리시의 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 시에 접목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며, 집행부에서도 이런 경험이 축적되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친환경 제도 및 선진 시설물에 대한 전문 확대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서관 탐방을 통해서선 선진화된 독서문화 함양 프로그램과 도서 반입 시스템에 대해 배울 수 있었으며 도심지에 지어진 혁신적인 디자인의 달링 스퀘어 도서관은 우리시 도서관 건축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 아울러, 시장의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주기적인 시설 관리와 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해 내수 경기 진작은 물론 관광객이 끊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호주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를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시 장현, 마석 등의 전통시장 활성화와 단단한 소상공인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전반적으로 호주는 이민자들로 구성된 국가에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옛 것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보존과 개발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는 등 ‘온고지신’의 가치로 도시를 발전시키고 있음에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유산으로 둘러싸인 남양주로서는 제도적으로 배우고 접목할 것이 풍부한 나라였으며,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있어 이번 국외 출장으로 느낀 점들을 어떻게 시정에 접목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지 많은 것을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음.